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0년도 제37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체육계의 '뜨거운 감자' KOC 관련 입장 표명... "분리 없는 게 더 효율적"
방한 전격취소 관련 의혹... 문체부 "코로나 외 다른 이유 없다" 일축
"남북 공동 올림픽, 확답 어렵지만 문은 열려 있다"

스포츠인권, 사람이 먼저다

1. 언제까지 패릴 건가, 언제까지 맞을 건가
2. 전남체육회장, 강진·보성체육회장 폭력·폭언 사과
3. 스포츠선수 노동조합 탄생... "우리도 보장받을 권리 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SBS NEWS
권종오 기자 2020.10.27

바흐 위원장 “KOC 분리 없는 게 더 효율적”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국내 체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KOC는 하나로 통합돼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부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KOC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대한체육회와 상당수 체육인들은 강력히 반대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흐 위원장은 어젯(26일)밤 SBS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KOC 분리 문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외부의 압력이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에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통합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분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IOC의 헌장에 명시된 NOC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바흐 위원장은 "KOC가 분리됐을 때보다 현재의 통합 대한체육회가 여러 도전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고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자신의 조국인 독일의 과거 예를 들면서 "독일 체육회가 둘로 분리됐을 때 서로 비난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혁신과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한국에도 벌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이어 "현재의 통합 대한체육회를 유지하는 것이 KOC 분리를 놓고 각종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육일기 문제에 대해 바흐 위원장은 "육일기는 나라마다 문화마다 각각 해석이 다르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정치적 시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육일기 문제는 사안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단순히 육일기를 소지한 채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악화로 인한 내년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한 바흐 위원장은 경기장 입장 관중은 축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올림픽 경기장에 관중이 가득 들어오는 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관중을 얼마나 줄일지는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개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jo@sbs.co.kr

바흐 IOC위원장 방한 전격취소 관련 의혹... 문체부 “코로나 외 다른 이유 없다” 일축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방한이 전격 취소됐다. 바흐 위원장은 26일 거행될 서울평화상 수상을 위해 24일 입국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급히 일정을 취소했다. 주최측인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최근 유럽, 특히 스위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되어 해외여행이 심각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및 IOC와의 논의를 통해 10월 26일 거행될 예정인 제15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24일 입국 후 25일 이기흥 IOC위원(대한체육회장), 유승민 IOC위원(대한탁구협회장)과 잇달아 회동하고 2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27일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가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를 점검할 예정이었던 모든 일정이 전격 취소됐다.

유승민 IOC위원은 "전날밤 바흐 위원장님으로부터 급히 연락을 받았다. 스위스 등 유럽에 코로나가 재창궐하는 분위기에서 IOC의 수장으로서 개인적인 상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신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화상회의를 자주 하긴 하지만, 직접 방한하시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2032년 남북올림픽 추진 등 남북 체육 교류, 평창 레거시인 2024년 유스동계올림픽과 내년 도쿄올림픽 준비 상황, 부산세계탁구선수권 등 논의할 현안이 정말 많았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오시지 못하게 돼 많이 아쉽다"는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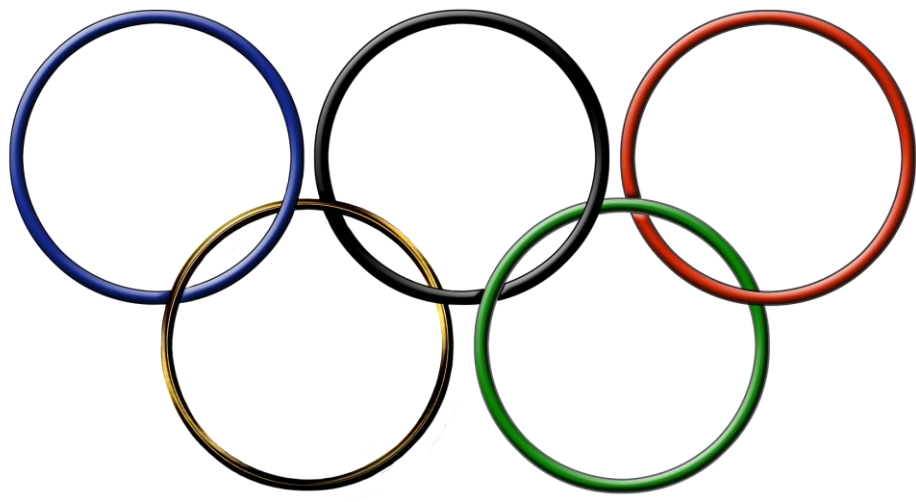
한편 바흐 위원장의 방한이 급작스럽게 취소되면서 '바흐 위원장의 문 대통령 면담시 배석 인사 선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이유가 됐다'는 세간의 의혹이 불거졌다. 문체부는 즉각 의혹을 일축했다.

26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 체육단체 확인감사 일정과 청와대 예방 일정이 겹치며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배석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박 장관 대신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의 배석이 결정됐다. 이후 KOC 분리와 차기 회장 선거 등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 정부가 이 회장을 배제했다는 설이 돌았다.

특히 바흐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늘 '마이 프렌드(My friend)'라 칭하며 수시로 연락해 남다른 애정을 표해온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 청년 체육인, 유승민 IOC위원을 배제한 데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을 위한 스포츠 외교 강화, 원활한 대화 분위기 측면에서도 대통령 면담시 IOC위원의 수행은 당연시됐다. 전세계 곳곳에서 IOC와 올림픽의 확산, 올림픽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대사격인 국내 IOC위원이 IOC 수장의 방한에 배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육계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바흐 위원장이 방한을 전격 취소하면서 '청와대 방문시 배석 인사 관련 불만, 정치권 인사의 과도한 면담 요구' 등 의혹이 일자 문체부는 주말인 24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을 통해 최근 유럽, 특히 스위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되어 해외여행이 심각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서울평화상문화재단 간 논의를 통해 10월 26일 거행될 예정인 제15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IOC 측에서는 기존 방한 취소 사유 외에 다른 배경이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sky4us@sportschosun.com



중앙일보
정효식, 전수진 기자 2020.10.27

바흐 “남북 공동 올림픽, 확답 어렵지만 문은 열려 있다”

“평창 겨울 올림픽은 올림픽이 평화로운 미래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토마스 바흐(67)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5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에서 “분단의 역사를 가진 독일(서독)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만큼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흐 IOC 위원장은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4일 방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했다. 바흐 위원장을 대신해 제11회(2012년) 수상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서울 신라호텔 시상식장에 참석해 상을 받았다.

이날 화상으로 참여한 바흐 위원장은 “직접 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해 무척 아쉽다”라고 했다. 1990년 초대 서울평화상 수상자인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에 이어 IOC 위원장으로 역대 두 번째 수상자다.

바흐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평창 올림픽 개최식에서 남북 단일팀이 환호 속에 공동 입장한 건, 2014년부터 개최식 4시간 전까지 이뤄진(남북) 정부 간 고위급 회담과 IOC의 적극적 개입 및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IOC는 스포츠를 통한 보편성과 연대 포용 지속가능성 등 올림픽 어젠다 2020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은 어젠다 2020의 모범적인 대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4년 강원 겨울청소년올림픽에서 다시 스포츠의 힘을 빌려 평화의 기틀을 마련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바흐 위원장은 “서울평화상 수상을 올림픽의 이상을 계속 추구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바흐 위원장은 2017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올림픽 휴전결의안을, 이듬해 스위스 로잔에서 북한 선수단의 예외적 참가를 허용하는 ‘올림픽 한반도 선언’을 끌어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 토대 마련에 기여했다. 사상 처음 난민선수단을 올림픽에 참가시키고, 올림픽난민재단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난민 인권 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 염재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이 밝힌 시상 이유다.

다음장 계속

바흐 위원장은 시상식 이후 중앙일보와 가진 별도 화상 인터뷰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추모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그는 “내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2013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IOC 총회 때 마지막으로 (이 회장을) 만났다”며 “삼성을 혁신해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키워낸 분답게 우리의 대화는 IOC의 혁신과 개혁으로 이어졌고, 나의 IOC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말해준 이 회장이 많이 그립다”고 했다. 이어 “(전임 자크) 로게 IOC 위원장과 함께 만났을 때도 올림픽의 각종 메달 등 다양한 지식을 나눌 수 있어 감탄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바흐 위원장은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뒤 로잔 IOC 본부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IOC는 “별세 소식은 크나큰 슬픔”이라며 “고인이 올림픽 역사에 남긴 유산(legacy)은 영원할 것”이라는 바흐 위원장 명의 입장문을 냈다.

Q 방한을 갑자기 취소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A “코로나19 때문이다. 방한하려면 스위스에서 프랑스를 거쳐야 하는데, 두 나라 모두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내가 확진이 된다면 한국인의 건강도 문제 아니냐.”

Q 한국 정부는 이르면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를 꿈꾸고 있는데.

A “현 시점 확답은 어렵다. 일단 (한국 정부가 표명한) 개최 의사는 받아들인 상태라 문은 열려 있고, (IOC는) 절차를 밟아 나갈 준비는 돼 있다. 새롭게 바꾼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을 거쳐 순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Q 국제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로 도쿄 올림픽 경기 취소를 권고한다면.

A “가정의 질문에 답할 시기는 아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장 입장부터 검사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한 ‘툴박스(tool box)’를 고안 중이며 경기 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Q 도쿄 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IOC가 사실상 허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A “IOC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올림픽에선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시위와 표현도 금지되는 게 마땅하다.”

jinpul@joongang.co.kr



한겨레
김갑년 교수 2020.10.28

언제까지 때릴 건가, 언제까지 맞을 건가

최근 뉴스에 또다시 스포츠계 폭력 사건이 보도됐다. 무자격 빙상 코치가 실업팀 선수 목살을 잡고 무차별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코치는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됐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심석희 선수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고, 고 최속현 선수의 죽음으로 스포츠계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스포츠계의 폭력은 끝을 모르는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2019년 2월 빙상 조재범 코치의 선수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 사건의 근절과 인권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출범했다. 조사단은 2019년 11월 7일, 7월부터 9월까지 학생 선수가 있는 전국 5274개교 초중고 선수 6만 32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총 5만 7557명(91.1%)이 응답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체 학생의 34.2%, 즉 3분의 1이 넘는 아이들이 폭력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이 자유 의견으로 전한 얘기들이다. 수영선수인 한 남자 초등학생은 “엄마는 제가 수영하는 걸 보러 오시고, 제가 맞는 것도 보시거든요, 엄마는 운동할 때 똑바로 잘하지 왜 맞았냐고, 다음부터는 똑바로 잘하라고...”라고 했다고 진술한다.

보고서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폭력을 경험한 뒤 느끼는 감정을 묻는 말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함”이라고 898명(38.7%)이나 답했다고 한다. 심각하다. “(이는) 일상화된 폭력 문화 속에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미 폭력을 훈련이나 실력 향상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폭력의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폭력의 내면화는 운동집단 내 폭력 문화가 지속,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한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폭력은 스포츠 분야에서 널리 퍼져 있다. 그 원인은 아이들이 저항할 물리적 힘도 정신적 힘도 없고, 게다가 저항할 방법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코치, 주변 어른들 모두 성공만 하면 맞는 것 정도야 감수해야 한다는 의식도 원인이다. 민주화는 다만 큰 틀에서만 달성했다. 우리 삶 소소한 것에는 아직도 전근대적 폭력이 난무한다.

스포츠 폭력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많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양한 방안이 있다. 나는 그중에서 민주시민 교육과 인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폭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스포츠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언제 진정 행복한지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 존엄성도 알아야 한다. 폭력이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좋은 싫은 폭력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다. 폭력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게 바로 “왜 때려요?”라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민주시민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일보
박경우 기자 2020.10.28

전남체육회장, 강진·보성체육회장 폭력·폭언 사과

전남 강진군과 보성군 체육회장의 폭력과 갑질 행태에 대해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이 28일 사과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최근 일부 지역 체육회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폭력과 갑질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 폭력 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체육회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직접 사고에 나선 이유는 최근 강진군체육회장이 "군수 만찬 일정을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군청 5급 공무원을 흥기로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해 경찰에 입건됐다. 보성군체육회장도 군청의 보조금 감사를 거부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해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는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스포츠 인권교육을 22개 시·군 체육회와 69개 회원 종목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스포츠 행정가를 위한 인권교육도 할 방침이다.

또 도체육회 내에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해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을 상시 점검하고, 시·군 체육회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지역 체육회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체육회도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와 논의 중이다.

김 회장은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스포츠계 폭력 및 갑질 등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시 강력한 조치와 처벌을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gwpark@hankookilbo.com



경륜선수들의 노동조합 탄생 “우리도 노동기본권 보장받을 권리 있다”

스포츠선수들의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이하, 경륜선수노조)이다.

27일 경륜선수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설립신고를 한 지 206일 만에 노조설립필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륜선수노조는 경륜 선수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설립을 준비했고 올해 3월 26일 설립총회를 열었다. 이어 같은 달 30일 노동청 안양지청에 설립신고를 했지만, 안양지청은 두 차례 설립신고서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립신고서를 보완하여 재차 노조설립을 신고했고, 206일 만인 지난 21일 노조설립필증을 받았다.

노조 설립 선언문에서, 경륜선수노조는 그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노동력 착취 및 생계권 압박, 공공연한 갑질을 견디며 살아왔다며 “이제 우리 경륜선수노조는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통한 법적단체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앞으로 25년간의 노동력 착취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엄정하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물을 것이며,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5년간 우리 경륜선수들 개개인은 부당함을 오롯이 혼자 짊어져야 했다”며 “이제 우리의 법과 제도는 우리의 취약점이 아니라 창과 방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입장과 생각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경륜선수라는 하나의 연대로 나아가, 스포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노동조합으로 자리 잡겠다”고 밝혔다.

이경태 경륜선수노조는 “업종을 불문하고 노조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형태를 가진 경우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특수노동자들의 노조설립 문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폭력 근절 캠페인

프로젝트 움직임 Project Umjik

고 최속현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요?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고 문체부는 특별조사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져야 할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많은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역시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네'라는 교훈을 얻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에서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프로젝트 '움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1. 자신이 평소에 하는 운동이나 표현하고 싶은 동작을 촬영합니다. 사진 혹은 글도 대체 가능합니다. 자신을 찍어 올리기 부담스러우시면 몇 글자 쓰기 또는 자유로운 방법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 폭력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2. 위의 의미와 방법을 복사해서 자신의 표현(동작, 글, 그림 등)을 SNS에 올립니다.
3. 다음 번 주자를 세 명 지목합니다.
4. 지목한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폭력이 사라진 체육계를 상상합니다. 존중과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스포츠계를 상상합니다. 지금 함께 움직여 주세요.

#스포츠인권캠페인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 체육시민연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연대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체육시민연대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체육시민연대 활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됩니다.**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 바랍니다.**

국민은행 086601-04-095940

예금주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